

‘폴더블폰 中 시장 선점’ 삼성에 화웨이 도전장

갤럭시 폴드

3차까지 완판... 내일 4차 판매

메이트 X

영하 5도 이하 사용주의 논란

중국 시장인 만큼 경쟁에 수월

삼성과 화웨이가 중국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맞붙는다. 지난 10월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최근 중국에서 판매를 진행했고 화웨이가 15일 ‘메이트 X’의 중국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갤럭시 폴드가 중국 시장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면서 사전 인기를 증명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화웨이의 전략이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기세를 몰아 갤럭시 폴드를 5G 버전으로도 출시할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차이나텔레콤과 함께 W20 5G를 ‘심계천하(높은 사람이 세상을 걱정한다)’ 시리즈로 발표한다.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이 제품이 갤럭시 폴드 5G 제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갤럭시폴드



/삼성전자



메이트 X

/화웨이

중국에서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에서 5G 네트워크 상용화가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이미 판매가 시작했다. 비보, 화웨이, ZTE 등 제조업체와 중국의 대형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이 빠른 출시로 주도권을 잡으며 소비자의 인지도를 얻었으며 샤오미, 오포, 원플러스 등 다른 업체들도 올해 말까지 5G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심계천하는 삼성전자가 2013년 첫 출시 이후 꾸준히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선

보이는 스마트폰 시리즈다. 수익금의 약 50%를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중국의 슈퍼리치를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한편 삼성전자는 16일 오전 중국에서 갤럭시 폴드 4차 판매를 시작한다. 갤럭시 폴드는 8일 1차 판매에서 5분 만에 매진됐으며 11일 진행된 2차 판매에서는 매진까지 30분이 소요됐다.

차이점은 통신망이다. 현재 갤럭시 폴드는 중국에서 LTE 제품만 판매중이다. 삼성전자가 19일 차이나텔레콤과 함께 W20 5G폰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이 제품이 갤럭시 폴드 5G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제품 발표 전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웨이도 그간 출시를 미뤘던 폴더블폰 ‘메이트 X’를 15일 출시하며 폴더블폰 경쟁에 돌입한다. 예정대로 출시되면 갤럭시 폴드와의 비교가 조명 받을 전망이다. 다만 화웨이가 메이트 X 출시를 앞두고 ‘영하 5도 이하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을 펼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하 5도라는 날씨가 혹독한 환경이 아닌데 제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

황에서 성급히 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인 만큼 어느정도 성과가 전망된다. 화웨이는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상황에서도 3분기 점유율 40%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갤럭시 폴드와 메이트 X의 큰 차이점은 접는 방식이다. 갤럭시 폴드는 화면을 책처럼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인 반면 메이트 X는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이다. 가격은 갤럭시 폴드가 더 저렴하다. 갤럭시 폴드 4G 중국 출시가격이 약 265만원이고, 메이트 X는 287만원이다.

모토로라도 현지시간 13일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레이저 2019’를 공개하는 행사를 연다. 모토로라 제품은 화면을 수직으로 접을 수 있으면서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갤럭시 폴드나 메이트 X가 수평으로 접는 방식이다. 레이저 2019의 출시가격은 약 175만원으로 판매 중인 폴더블 폰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예상된다.

/구세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조경민씨의 ‘플로팅 링스’(가운데), 김인화씨의 ‘이터니티’(왼쪽), 김선우씨의 ‘도도새와 비스포크’를 우수상(오른쪽). /삼성전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공모전 대상 시상

밀라노 박람회 전시·판매 검토

삼성전자가 13일 삼성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BESPOKE랑데뷰파티를 열고 비스포크 디자인 공모전 #BESPOKE 랑데뷰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했다.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해 냉장고를 직접 디자인하고 싶어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공모전에는 총 1114점 작품이 출품됐다. 온라인 공개 투표에는 2만8000여명

이 참여해 파이널 리스트 10명을 추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작품 10점을 현장에 전시했으며, 인플루언서 200여명의 현장 투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최종작을 가려냈다.

대상은 조경민씨의 ‘플로팅 링스’가 차지했다. 수면 위에 물감을 띄워 수백 개의 동심원을 그린 후 종이에 찍어내는 수전사 기법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삼성전자는 대상 작품을 내년 4월에 개최되는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전시하고, 추후 판매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juk@

LG전자, 지스타서 역대 최대 규모 전시

전시공간 절반 스마트폰 체험존
프로게이머·개그맨 이벤트 진행

LG전자가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9’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게임 마니아를 사로잡는다.

LG전자는 행사장 내에 720㎡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LG V50S 씽큐, LG 듀얼 스크린,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LG 울트라기어 17 노트북 등 다양한 IT기기를 전시했다.

LG전자는 전시공간의 절반을 LG V50S 씽큐와 LG 듀얼 스크린 등 스마트폰 체험존으로 꾸몄다. LG전자가 지스타에서 모바일 부스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 공간에 마련된 LG V50S 씽큐와 LG 듀얼 스크린을 각각 150대를 통해 관람객은 ‘배틀 그라운드’,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등



LG전자 부스에서 모델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인기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LG 듀얼 스크린은 고객이 원할 때만 2개의 화면으로 여러 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탈착식 올레드 디스플레이다.

LG전자는 최적의 게임환경을 구현하는 다양한 IT기기도 선보인다. LG전자는 지난해 게이밍 모니터에 적용한 ‘LG 울트라기어’ 브랜드를 올해부터

고성능 노트북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LG전자는 관람객들이 게임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프로게이머, 개그맨들과 함께하는 게임 이벤트도 연다. 이 행사는 CJ ENM이 운영하는 게임채널 OGN과 함께한다.

/구세운 기자

정유업계 효자가 애물단지로... PX 마진 반 토막

(파라자일렌)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 현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유업계에 ‘효자’로 꼽히던 PX(파라자일렌)가 수익성이 악화되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PX는 지난해 9월 원료 나프타와 가격 차이로 남은 마진이 600달러를 상회하며 최고점을 기록했고 올해 초까지도 견조한 수익성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후 파라자일렌의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

다. 최근에는 파라자일렌의 마진이 정유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손익분기점까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PX(파라자일렌)’은 나프타 분해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으로, 폴리에스터 섬유 및 페트병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PTA(고순도테레프탈산)의 원료다. 파라자일렌은 정유사 화학 부문의 주력 제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333만톤), 한화토탈(200만톤), 에스오일(190만톤), GS칼텍스(135만톤), 현대코스모

(118만톤), 롯데케미칼(75만톤) 등이 파라자일렌을 생산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인 PX(파라자일렌)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만 해도 원료(나프타)와의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가 톤당 635달러를 기록하며 수익성 면에서 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 1분기 톤당 540달러를 유지하던 파라자일렌은 지난 10월 기준 평균 253달러의 마진을 나타내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밀레니얼 위한 ‘특별한 혜택’ 즐기세요”

삼성전자 갤럭시 아카데미 운영

삼성전자가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밀레니얼을 위한 특별한 혜택으로 더 풍성해진 ‘갤럭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갤럭시 아카데미는 기존 PC 중심의 ‘S 아카데미’에서 모바일과 태블릿, 웨

어러블 기기까지 품목을 확장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품목 구매 할인과 함께 수험생 대상 구매 조건에 따라 ‘갤럭시 버즈’, ‘갤럭시 핏’ 등을 제공한다. 갤럭시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세운 기자